봄 이사철 포장이사 업체 횡포 주의보

최근 5년 피해호소 꾸준히 증가
파손 책임 회피하고 보상 거부
계약서·보험가입 꼼꼼히 살펴야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이사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2014년 372건, 2015년 458건, 2016년 419건, 2017년 424건, 2018년 455건 등 총 2128건에 달했다.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소비자 단체의 설명이다.

피해신고 업체별로 살펴보면 영구크린이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란이사 73건, KGB 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 로젠이사 39건, 이사의 달인 36건 등의 순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관련(계약불이행·무능력자계약·위약금 등) 1261건, 품질·AS 관련 548건 등이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생겼는데도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환급하고 떠난 사례 등도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128건 중 절반이 넘는 1195건(56.1%)이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정보제공과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38.6%)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36.4%)이었고 환급은 62건(2.9%)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광주에서도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장이사 민원상담 건수는 2015년 85건, 2016년 95건, 2017년 100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원룸으로 포장이사를 한 정모(38)씨도 이사당일 업체가 짐이 많아 사다리차를 불러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이사견적에도 없는 30만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포장이사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선 견적계약시 반드시 포장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과 배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유명 이사업체의 경우에도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는 탓에 가맹점 중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업체 허가여부는 광주화물주선협회(062-264-9114), 또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발생시 이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피해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물품파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자료로 남겨 둬야 한다.

광주화물주선협회 관계자는 "허가를 내고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물품 등의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53 / 해짐 19:10 / 달뜸 22:11 / 달짐 07:53

슬그머니 다가온 여름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

광 주	맑음	15/26	보 성	맑음	11/22
목 포	맑음	13/23	순 천	맑음	14/24
여 수	맑음	15/20	영 광	맑음	10/23
나 주	맑음	11/26	진 도	맑음	11/23
완 도	맑음	14/22	전 주	맑음	13/28
구 례	맑음	11/26	군 산	맑음	12/24
강 진	맑음	12/24	남 원	맑음	12/26
해 남	맑음	10/23	흑산도	구름많음	11/19
장 성	맑음	11/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	동~남동	0.5
	먼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동~남동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16	04:11
	21:23	16:16
여수	04:48	10:53
	16:48	23:25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14/22	16/20	14/21	10/18	9/21	10/21	12/22

도심축제 프린지페스티벌 개막 제4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지난 20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개막했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각 공연들을 짧게 구성해 공연하는 프리뷰쇼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영산강환경청 수영대회 대비 화학물질 사업장 30곳 현장확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0곳을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장 확인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나이트로벤젠·황산·질산·산화질소·사린 등 사고대비물질 관리 실태, 불법유통 여부 등을 살펴본다.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정 조처하고, 가벼운 과실은 현지 지도할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빈틈없는 화학물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28일 '환경 토크 콘서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지구 잔디광장 일원에서 '무등산 필(必)환경 토크 콘서트'를 연다. '필환경'은 반드시 친환경 생활을 해야한다는 의미다.

'생활 속 필(必)환경 실천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프리사이클링' (pre와 recycling의 합성어.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음)과 '제로 웨이스트'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에 탐방객을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기획됐다.

양지현 국악라디오방송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토크쇼와 함께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 '원보틀' '씨소 뮤지컬 컴퍼니' '팬타곤'이 재능기부 공연을 펼친다.

또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꽃차 시음회,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해 생활 속에서 필환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 일회용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텀블러와 용기는 각자 지참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우리도 체험 활동하고 여행 즐기고 싶어요"…장애학생이 교육감에게 쓴 손편지

장휘국 교육감 광주선광학교 찾아
"학생들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제 친구) 희영이의 꿈은 아이돌 가수입니다. 희영이가 장애인도 가수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 3인데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 싶습니다."

특수학교 재학생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 담긴 내용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19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광주선광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학생회장 김광 군으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다. 〈사진〉 교육감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한 학생회장의 편지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바람과 고민, 건의사항을 담고 있었다.

"우리 학교에는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저 역시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장애인 시설을 나왔을 때 다른 시설로 옮겨가지 않고 취업을 통해 자립하고 싶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도)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체험학습 외에 휴일에도 여행이나 여가활동을 하고 싶어요. 주말 대부분을 컴퓨터나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댄스, 노래도 배우고 싶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할 때 신이 나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가 적힌 2장짜리 편지에 대해 장 교육감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자"며 학생 대표들을 시교육청으로 초대했다. 선광학교는 영·유·초·중·고·전공과 과정, 52학급 규모로 지적장애 학생 등 308명이 재학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리산 구상나무 살리기 세석평전서 실마리 찾는다

지리산 반야봉·천왕봉 일대에서 집단 고사한 구상나무(멸종위기종)가 세석평전(해발고도 1500~1600m)에서는 활발히 생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세석평전의 생태 환경을 분석해 구상나무 복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생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석평전의 구상나무가 다른 곳에 비해 활발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석평전 일대에는 구상나무 어린나무 개체수가 1ha 당 평균 1000여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 반야봉·영신봉·장터목에 비해 14배까지 많은 수치이다.

환경부는 세석평전의 기온·토양·바람 세기·서식 동식물 등 생태환경이 구상나무 생장에 알맞은 것으로 보고,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